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관하여(1647, 영문)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 영문) 1장 '성경에 관하여'(Of the Holy Scripture) 1–10절. 쪽 범위 없음.

🧭 흐름 한눈에

고백서는 하나님에 관한 장(2장)보다 성경에 관한 장을 먼저 둡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그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자연만으로는 구원을 알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글로 남기셨기에 성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3절은 어떤 책이 성경인지 정하고, 4–5절은 왜 성경을 믿는지(권위의 근거와 확신의 출처)를 답합니다. 6–7절은 성경이 무엇을 주는지(충분함)와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분명함)를 다룹니다. 8–10절은 원어 본문과 번역, 해석의 규칙, 마지막 판결자를 차례로 다룹니다. 장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1절)로 시작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10절)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묶어 둔 구조입니다.

📜 절별 정리

📜 1. 자연의 빛으로는 부족하다 — 성경의 필요성

고백서는 먼저 '자연의 빛'을 인정합니다. 자연의 빛은 양심과 이성처럼 사람 안에 심어진 하나님 인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창조와 섭리의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드러남이 분명해서 사람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히브리서 1:1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표현) 자신을 교회에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열어 보여 주시는 일입니다. 그 뒤

공격 앞에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를 통해 직접 뜻을 알리시던 방식이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필요한” 것이 됩니다.

1. 자연도 하나님을 보여 준다, 핑계 못 할 만큼
2. 그러나 자연으로는 구원의 길을 모른다
3.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것을 글로 남기셨다
4. 글로 남긴 이유: 보존·전파·교회의 견고함과 위로
5. 이전 계시 방식이 그쳤기에 성경이 꼭 필요하다

> **로마서 1:19-20**
>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주어 핑계할 수 없음
>
>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로마서 2:14-15**
> 양심에 새겨진 율법, 곧 '자연의 빛'의 근거
>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 **시편 19:1-3**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없이 선포함
>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히브리서 1:1-2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심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가복음 1:3-4

확실히 알게 하려고 차례대로 기록함, 곧 기록의 목적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15:4

기록된 말씀이 교회에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마태복음 4:4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기록되었으되"로 맞서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억할 문장(1절 우리말 번역):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낸다.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지

남기기를 기뻐하셨다. 진리를 더 잘 지키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였다.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 굳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성경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기 때문이다."

📜 2. 성경은 어떤 책들인가 — 정경 목록과 영감

고백서는 '성경'이라는 이름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책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적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루는 책들의 공인된 목록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잣대'라는 뜻의 말입니다. 목록을 굳이 적은 까닭은 “성경이 권위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성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흐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움직여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일입니다. 영감으로 주어졌기에 이 책들은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됩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지를 재는 잣대라는 뜻입니다. 목록을 보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묶음 뒤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1. 성경 =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2.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이름으로 못 박음
3.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짐
4. 그래서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됨

>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영감)으로 된 것, 곧 '영감으로 주어짐'의 근거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에베소서 2:20**
>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짐, 곧 신약과 구약이 함께 기초

베드로후서 3:15-16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둠, 곧 신약 문서도 성경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16:29, 31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함, 곧 기록된 말씀이 신앙의 규칙

누가복음 16: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가복음 16: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억할 문장(2절 우리말 번역):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들어 있다.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다.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따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다. 이어서 바울 서신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 시기의 유대 문헌 가운데 일부 책들을 말합니다. 마카베오서, 토빗서, 집회서 같은 책입니다. 로마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1546)에서 이 가운데 여러 권을 정경으로 받았습니다. 고백서는 외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근거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정경이 되는 기준은 영감인데, 외경에는 영감이 없으니 정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다만 고백서는 외경을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의 글처럼” 읽고 쓸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올려 교리의 근거로 삼는 데 있습니다.

1. 정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감
2. 외경은 영감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경이 아니다
3.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다
4. 사람의 좋은 책 정도로는 읽을 수 있다

> **로마서 3:2**
>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유대인, 곧 구약의 범위를 이스라엘이 받아 지킴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누가복음 24:27, 44**
>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성경 전체로 부르심
>
> **누가복음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 **마태복음 23:35**
>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흔히 히브리 성경의 처음과 끝을 가리킨다고 읽힘
>
>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 **베드로후서 1:21**
>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곧 영감이 기준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기억할 문장(3절 우리말 번역): "흔히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 다른 인간의 글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

📜 4.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고백서는 먼저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성경을 승인했으니 성경에 권위가 생긴다는 입장을 겨냥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만든 주인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보고 받드는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1. 성경의 권위는 사람·교회에서 오지 않는다
2.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3.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
4.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다

> **디모데후서 3:16**
> 성경의 출처가 하나님이심, 곧 권위의 근원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요한일서 5:9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기억할 문장(4절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다. 이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다.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 5.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는가 — 교회의 증언, 성경의 증거, 성령의 증언

5절은 세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째, 교회의 증언은 쓸모가 있습니다. 부모와 교회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성경을 높이 보게 합니다. 둘째, 성경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거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돌리는 전체의 목적, 구원의 유일한 길을 온전히 드러냄도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신적 출처를 드러내는 것을 '자증'이라고 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우리의 “온전한 확신”은 이런 논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시키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떠나 새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 곁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두 극단을 함께 막습니다. 증거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생각과, 말씀 없이 성령만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1. 교회의 증언: 존중으로 이끄는 출발점
2. 성경의 증거: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넉넉히 보임
3. 온전한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4.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증언
5. 증거를 무시하지도, 증거에 기대지도 않음

> **디모데전서 3:15**
>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곧 교회 증언의 가치
>
>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 **요한일서 2:20, 27**
> 성령의 기름부음이 신자를 가르치심, 곧 내적 확신의 근거
>
> **요한일서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
>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고린도전서 2:10-12**
>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됨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14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함, 곧 증거만으로는 부족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사야 59:21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 그 백성에게 머묾, 곧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6:13-14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기억할 문장(5절 우리말 번역): "교회의 증언은 우리가 성경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이끌 수 있다. 또 성경에는 여러 증거가 있다. 내용이 하늘에 속한 것, 가르침에 힘이 있는 것, 문체가 장엄한 것이 그렇다. 모든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것도 그렇다. 전체의 목적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는 것도 그렇다.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도 그렇다. 그 밖의

말씀임을 넉넉히 증명한다. 그러나 성경의 틀림없는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확신은 다른 데서 온다.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일에서 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시는 일이다."

📜 6. 성경은 충분하다 — 충족성과 그 경계

6절은 '성경의 충족성'을 말합니다. 충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다 있다는 말은 두 방식을 포함합니다. 성경에 직접 적혀 있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에서 부활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새 계시”라는 이름으로도, “사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앞의 것은 열광주의를, 뒤의 것은 기록되지 않은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보는 로마 교회의 입장을 겨냥합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펴면 저절로 깨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에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내적 조명은 이미 주신 말씀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밝혀 주시는 일입니다. 또 예배와 교회 운영에는 몇 시에 모일지, 어디서 모일지처럼 사람의 모임이면 어디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의 일반 원칙 안에서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로 정합니다.

1. 구원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다
2. 직접 적힌 것 +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
3. 새 계시도, 사람의 전통도 더하지 못한다
4. 깨달음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5. 예배의 '정황'은 말씀의 원칙 안에서 분별로

> **디모데후서 3:15-17**
>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갖추게 함
>
>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8-9

다른 복음은 천사가 전해도 저주받음, 곧 새 계시를 더하는 것 금지

[8]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가복음 7:7-8, 13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 곧 전통을 더하는 것 금지

마가복음 7:7-8 [7]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2:31-32

예수님의 추론으로 끌어낸 부활, 곧 '필연적 추론'의 본보기

[31]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45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 나아옴, 곧 내적 조명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고린도전서 11:13-14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곧 자연의 빛의 역할

[13]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14:26, 40

모든 것을 덕을 세우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곧 말씀의 일반 원칙

고린도전서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기억할 문장(6절 우리말 번역):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일이 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온 뜻은 성경에 담겨 있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거나, 성경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으로 끌어낼 수 있다. 여기에는 언제든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새 계시라 하든, 사람의 전통이라 하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깨닫기 위해서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한 몇몇 정황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은 사람의 일과 모임에 두루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일은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로 정해야 한다. 다만 말씀의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 원칙은 언제나 지켜야 한다."

📜 7. 성경은 분명하다 — 명료성

7절은 '성경의 명료성'을 다룹니다. 명료성은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성경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고백서는 정직하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똑같이 쉬운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일상적인 수단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묻고, 기도하는 평범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절은 성경은 너무 어려우니 교회의 해석만 따르라는 생각을 겨냥합니다. 동시에 대충 읽어도 다 안다는 태도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1. 성경의 모든 것이 똑같이 쉽진 않다
2. 구원에 필요한 것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3. 배우지 못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4. 조건: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 쓰기

> **베드로후서 3:16**
>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음, 곧 '모든 것이 똑같이 쉽진 않다'
>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시편 119:105**
>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 곧 말씀은 길을 비춤
>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130**
>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줌, 곧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앎
>
>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 **시편 19:7**
>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함
>
>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 **사도행전 17:11**

>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기억할 문장(7절 우리말 번역):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자체로 똑같이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은 다르다. 그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풀이되어 있다. 그래서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 쓰면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 8. 원어 본문과 번역

구약은 옛 하나님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신약은 당시 여러 민족이 가장 널리 쓰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이 '권위 있는 표준 본문'입니다. 신앙의 논쟁이 생기면 교회는 마지막에 원어 본문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는 라틴어 번역(불가타)을 표준 본문으로 삼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과 대비됩니다. 그러나 원어는 모든 성도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모두 성경을 가질 권리와 몫이 있고, 성경을 읽고 살피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의 일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골로새서 3:16의 표현), 바르게 예배하고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로마서 15:4의 표현).

1. 원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심
2.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됨
3. 논쟁의 최종 호소처는 원어 본문
4. 모든 성도에게 성경을 읽을 권리와 의무
5.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해야 한다

> 마태복음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마서 3:2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 곧 구약 본문의 보존 통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사야 8:20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 곧 최종 호소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5:39

성경을 상고하라, 곧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4:9, 11-12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덕이 됨, 곧 번역의 필요

고린도전서 14:9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4:11-12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찬양하고

로마서 15:4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억할 문장(8절 우리말 번역):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는 옛 하나님 백성의 모국어였다.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그리스어는 신약이 기록될 무렵 여러 민족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이었다. 이 원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지켜졌다. 그러므로 원어 성경이 권위 있는 표준 본문이다. 신앙에 관한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마지막으로 원어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이 원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몫이 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살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의 일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다. 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 9.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틀림없는 규칙은 성경 자신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성경은 스스로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어떤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이 궁금할 때는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로 살펴야 합니다. 이 절은 괄호 안에 중요한 원칙을 넣어 둡니다. 한 구절의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구절에 문자적·비유적·도덕적·종말론적 의미를 따로따로 붙이던 중세의 해석 방식을 겨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뜻이 얄팍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백서는 그 하나의 뜻을 “온전한”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뜻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열쇠를 교회 권위나 개인의 느낌에 맡기지 않고 성경 자신에게 둔 것이 핵심입니다.

2. 한 구절의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
3. 하나지만 '참되고 온전한' 뜻
4. 어려운 구절은 더 분명한 구절로 푼다

> **베드로후서 1:20-21**
>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 곧 저자이신 성령의 뜻을 따라 읽음
>
>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사도행전 15:15-16**
>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함, 곧 성경으로 성경을 풀기
>
>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 **누가복음 24:27**
>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주심
>
>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기억할 문장(9절 우리말 번역): "성경 해석의 틀림없는 규칙은 성경 자신이다. 그러므로 어떤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을 두고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다. 그때는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로 그 뜻을 살피고 알아야 한다."

📜 10.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마지막 절은 신앙의 모든 논쟁을 끝내는 '최고 재판관'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후보는 여럿입니다. 교회 공의회의 결정, 옛 교부들의 의견, 사람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판결받는 자리에 둡니다.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한 분뿐입니다. 이 표현은 두 극단을 함께 막습니다. 성경을 교회 권위 아래 두는 쪽도, 성령을 성경에서 떼어 개인 체험에 두는 쪽도 막습니다.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성령의 음성은 성경을 떠나 따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판결 안에서 “안식”합니다. 마지막 판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1. 신앙 논쟁의 최종 판결자는 단 하나
2. 공의회·교부·사람의 가르침도 검토 대상
3. '개인의 영적 주장'도 검토 대상
4. 판결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5. 우리는 그 판결에 안식한다

마태복음 22:29, 31

성경을 모르니 오해한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 **마태복음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 **마태복음 22: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요한일서 4:1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곧 개인의 영적 주장 검증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에베소서 2:20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 곧 교회 결정보다 앞선 기초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기억할 문장(10절 우리말 번역): "신앙에 관한 모든 논쟁을 판결할 최고 재판관이 있다. 공의회의 모든 결정, 옛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의 가르침, 개인의 영적 주장도 그 앞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 판결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이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누구일 수 없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연의 빛

양심과 이성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심어 두신 기본적인 하나님 인식과 도덕 감각.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열어 보여 주시는 일.

영감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움직여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정경

원래 '잣대'라는 뜻.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된 성경 66권의 목록.

구약과 신약 사이 시기의 유대 문헌 가운데, 로마 교회는 성경에 넣지만 개신교는 넣지 않는 책들.

자증
성경이 다른 권위의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5절의 “스스로 넉넉히 증명한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성경과 함께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

충족성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들어 있어서 더할 것이 없다는 성질.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
성경에 글자로 적혀 있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결론.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본다.

명료성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성경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한다는 성질.

권위 있는 표준 본문
8절의 'authentical'. 모든 번역과 논쟁이 마지막에 기대야 할 기준 본문, 곧 원어 성경.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자연은 하나님을 보여 주지만 구원의 길은 기록된 말씀 성경만 알려 준다.
-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 우리는 성경 자체의 증거를 보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증언으로 확신한다.
- 성경은 구원과 삶에 충분하고, 필요한 만큼 분명하며, 모든 성도가 자기 말로 읽어야 한다.
-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모든 논쟁의 최종 판결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편 · 성경을 믿는다는 말의 뜻 · 다섯 책과 한 장의 지도
- 성경론 3편 · 자연이 말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 성경론 10편 · 66권은 누가 정했나 · 정경
- 성경론 11편 · 권위는 어디서 오나 ·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 성경론 12편 ·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낸다 · 자증성
- 성경론 13편 · 성령의 내적 증거 · 확신은 어떻게 오나
- 성경론 15편 · 무오성 · '틀림이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
- 성경론 17편 ·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나 · 필요성과 명료성
- 성경론 18편 · 성경으로 충분한가 · 충족성, 새 계시와 전통
- 성경론 19편 · 원본은 없는데 무엇을 믿나 · 보존, 사본, 번역
- 성경론 20편 ·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 해석의 규칙과 최종 재판관
- 성경론 22편 · 오직 성경, 그러나 혼자 읽지 않는다 · 성경주의와 전통주의 사이
- 성경론 23편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다섯 책의 합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